

아시아교육연구 20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1, pp. 1-24.

<https://doi.org/10.15753/aje.2019.03.20.1.1>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 유형에 따른 미래인재역량의 차이 및 영향요인 검증*

신혜진(申惠珍)**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적관여(parental involvement) 행동이 가정중심 참여와 학교중심 참여 영역에 걸쳐 조합되는 군집유형을 살펴보고 초등학교 6학년 자녀 6049명의 자기관리,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을 포함한 미래인재역량이 각 군집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성별, 형제자매의 수 및 학업성취도, 학교 참여기회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이 각 군집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 2차년도 자료 중, 학생 설문과 학부모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서 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 전반적 저조 집단,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 적극적 집단 등 4개의 군집유형이 도출되었다. 미래인재역량은 적극적 집단의 자녀가 세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이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 세 번째가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 마지막으로 전반적 저조 집단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부모, 자녀, 학교 관련 변인은 적극적 집단과 전반적 저조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참여 기회에 대한 인식은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 교육에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교육적관여, 미래인재역량, 교육적관여 영향요인

* 이 논문은 2017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1. 서론

우리사회는 학부모 관련 담론이 교사나 학교 관련 담론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관련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이종각, 2016). 예컨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려는 엄마를 가리키는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회자되거나(윤성연, 정경미, 2014),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 행동은 종종 ‘치맛바람’이라고 치칭되며 우려 섞인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김승보, 2015). 그러나 학부모는 엄연히 교육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13조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는 아동·청소년 발달과 직결된 생태체계로 교육에 대한 목표와 책임을 공유한다. 때문에, 이 두 체계가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여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세용, 1998; Epstein, 1987).

부모의 교육적관여(parental involvement)는 자녀의 발달과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물질적, 교육적 지원 및 조력활동으로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로 이해되어 왔다(변수용, 김경근, 2008; Lee & Bowen, 2006). 실제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교육적관여 활동과 자녀의 학업성취 및 심리·사회적 발달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할수록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Minke & Anderson, 2005), 자녀의 자아존중감, 학교출석률, 수업참여도,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용, 양현정, 2003; Hong & Ho, 2005).

부모의 교육적관여를 주제로 메타연구를 다수 실시한 Hill과 Tyson(2009)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지원 및 조력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크게 가정중심 그리고 학교중심 참여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적관여 행동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다수의 연구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학습관여(설경옥, 정승원, 2013)나 양육태도로 대변되는 부모-자녀의 상호작용(길혜지, 황정원, 2017; 김지연, 이은주, 2017;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8)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대화, 지도, 지원 등으로 한정해서 분석한 경우였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참여 활동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는데(김소영, 진미정, 2015; 주영효, 정주영, 박균열, 2016),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최근에서야 학교참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발달시기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초등학생 보다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관여 행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신혜진, 2011; 정제영, 정예화, 2015),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 특화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적관여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지닌 자원들을 동원함으로써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이므로(Lee & Bowen, 2006), 특정영역의 관여 행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의 관여 행동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실행되는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업 스트레스가 커질 뿐 아니라 사춘기에 진입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이 증폭되기 쉽다. 그러나 부모는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의 특성을 지켜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보호자이며 학업, 진로, 사회성 발달에 있어 모델링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부모의 교육적관여를 이해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KELS: 2013)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행동의 군집유형을 가정과 학교 영역을 포괄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그간의 연구들이 부모의 교육적관여의 효과 변인으로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치중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교육적관여의 각 군집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관리,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력에 초점을 둔 미래인재 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 자녀, 학교 관련 변인들이 각 군집유형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교육적관여의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미래인재역량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 학교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교육적관여

부모의 교육적관여(parental involvement)란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며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의 발달과 성취를 촉진하고자 부모가 행하는 다양한 심리적, 물질적, 교육적 지원 및 조력활동이다(변수용, 김경근, 2008; Lee & Bowen, 2006). 특히,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업, 진로, 인성 영역에서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시기로, 부모의 지지와 지도가 각별히 요구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여하는 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며, 그 결과를 부모의 관여행동을 촉진하는 개입 방안 마련에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모의 교육적관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송운혜, 2011; 심미옥, 2003;

전춘애, 2013), 학습관여(설경옥, 정승원, 2013), 교육참여(김소영, 진미정, 2015)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행동 유형을 가정에서의 성적 향상을 위한 지원, 자녀의 생활관리, 그리고 학교와의 교류 활동으로 구분하였다(심미옥, 2003). 성적향상을 위한 지원에는 공부를 직접 가르치거나 학습태도 지도하기, 사교육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학교와의 교류행위에는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활동이 포함되었다(심대영, 1996). 김경희(1997)의 연구와 최홍규(199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활동을 금전적, 심리·과정적, 시간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심리적 지원은 자녀가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전달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일로, 시간적 지원은 자녀의 생활을 지도·관리해주는 일 등으로 구분하였고, 금전적 지원은 사교육 비용 지원,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주는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최근, 전지원과 전자배(2016)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지원을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여가 활동에 동반 참여하기를 포함한 정서적 지원과 학습조력 및 사교육 지원, 학습시간 관리와 같은 학업적 지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신혜숙, 김준엽, 민병철(2016)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교육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교육활동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대변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를 동반한 방과 후 문화활동 참여, 교과와 비교과를 포괄한 사교육 지원 등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또한, 황여정, 장희원, 김경근(2014)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을 사교육참여,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자녀 학습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 교사와의 상담 등으로 구분하였다.

Hill 과 Tyson(2009)은 교육적관여 활동에 대한 메타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관여활동을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가정중심(home-based) 관여와 학교중심(school-based) 참여로 구분하였다. 가정중심 관여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부모가 가정에서 실행하는 지원활동으로, 자녀의 학습 및 생활습관을 지도하거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의 전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 등을 포함한 반면, 학교중심 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자녀 학교의 교원과 의논하거나 교내 행사 및 봉사활동,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지원 활동을 가리킨다(Hill & Tyson, 2009). 요컨대, 광의의 개념으로서 부모의 교육적관여는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및 지원으로, 학습 및 비학습 분야, 가정과 학교 영역을 아울러 이루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심리적 자원을 토대로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유형과 수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신혜진, 2011), 개개인 안에 다양한 관여의 유형과 수준이 혼재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분류체계들- 관여가 이루어지는 영역(가정중심 및 학교중심 관여)을 통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미래인재역량

한편,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기여할 수 있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지표 가운데, 미래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신혜숙, 김준엽, 민병철, 2016). OECD(2005)는 역량에 관한 연구(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에서 21세기 미래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및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창의적인 사고능력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부가 2015년에 개정 발표한 교육과정에서도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창의적 사고력,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등을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규정하였다(교육부, 2015). 이 가운데, 자기관리와 공동체 의식은 초등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길러주어야 하는 역량으로 학교교육과 더불어 부모에 의한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신혜숙, 김준엽, 민병철, 2016).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 역량으로서 창의적 사고력은 교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창의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관여와 이들 역량 간에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을 관리하고 목표를 위해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실천하는 역량이다(신혜숙, 김준엽, 민병철, 2016; 조주연, 강문선, 2017). 아동의 자기관리 능력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통제력, 자율성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율성을 허용하는 태도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독립심과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Belsky, 1991). 예컨대, 최윤경과 이지연(2011)은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자율성을 부여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한다고 보고한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집중력을 가지고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개념화된 자기 통제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신혜숙, 김준엽, 그리고 민병철의 연구(2017)에서도 자녀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문화 및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기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교육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연대감과 소속감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신념이다(McMillan & Chavis, 1986). 이는 개인이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집단주의 의식'과 달리(정진경, 1999),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이다(박상미, 2018). 아동기에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바람직한 시민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6). 아동이 사회성과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선미정 외, 2018).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방식은 공동체의식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지지적이며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공동체의식 함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위정, 2012; 김희태, 김정림, 2012; 신혜숙, 김준엽, 민병철, 2016), 부모와 함께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숙, 김준엽, 민병철, 2016).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으로서의 창의적 사고력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킨다(이현주, 이정규, 도승이, 2014). 창의적 사고력 또한 부모의 교육적관여와 관련이 깊다.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창의적 사고역량을 향상시키며(박성익, 이규민, 200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주며 존중해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이정규, 도승이, 2014; 조성연, 1997).

3. 부모 교육적관여의 영향요인

한편, 부모가 교육적관여를 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첫째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다.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이두휴, 2008; Kohl, Lingual, & McMahan, 2000). 이는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거나 담임교사와 직접 면담하며 자녀 문제를 의논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세용, 1998). 반면,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 특히 어머니가 취업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자녀교육에 참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참여수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변수용, 김경근, 2008). 둘째는 자녀관련 요인으로, 자녀의 성별, 형제자매의 수,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육적관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교참여가 더 활발하다(김소영, 진미정, 2015; 변수용, 김경근, 2008). 자녀의 성별 관련 연구결과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데, 학교참여는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가정에서의 관여는 딸인 경우에 더 활발하다는 연구가 있으며(Manz et al., 2004), 같은 학교방문일지라도 아들과 딸에 대한 관여 유형이 달라서 딸에게는 지지를 위한 관여를, 아들에게는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방문이 더 많다는 연구도 있다(Muller, 1993).

마지막으로, 관여에 대한 부모의 신념 및 인식 관련 변인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그리고 관여활동에 대한 유능감이 높을수록 활동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현장 중심 관여를 연구한 김소영과

진미정(2015)은 학교행사 지원 및 교사와의 면담으로 측정된 학교참여가 자녀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참여 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학교로부터 참여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참여를 독려 받는다(Perceptions of invitations for involvement)고 지각할수록 교육적관여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증진된다는 보고가 있다 (Hoover-Dempsey & Sandler, 2005).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적관여의 군집유형과 이에 따른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의 2013년도 자료 중 자녀인 학생이 6학년에 재학 중인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은 2013년 당시,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전국 초등학생 7,826명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로,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김양분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부모 설문과 학생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부모 설문 중 가족 구조에 대한 질문에서 어머니 및 아버지와 모두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 설문자료는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총 6,049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2,979명(49.2%), 여학생은 3,070명(50.8%) 이었다.

2. 연구 변인

1) 부모의 교육적관여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교육적관여는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행할 수 있는 정서적, 시간적, 재정적, 교육적 지원 및 조력활동으로 학습 및 비학습 분야 및 가정과 학교 영역을 아울러 이루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13) 학부모 설문지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학습지도 및 사교육지원 관련 11문항과 자녀와 함께 한 학교참여, 문화/여가 활동 관련 4문항, 그리고 자녀 학교활동에 대한 부모의 참여 관련 5문항 등 총 20문항을 통해 자녀에 대한 교육적관여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학습지도 및 사교육지원 관련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5: 매우그렇다)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관련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0: 없다, 1; 1-2번, 2;3-4번, 3;5번 이상)로 측정하고 있어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가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5문항은 (1; 그렇다, 2; 아니다)로 측정하고 있어, (0; 아니다, 1; 그렇다)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최종 20문항에 대해 최대우도방식(maximum likelihood)과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여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중 3개 문항(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 정보를 얻는다, 자녀의 성적 관리에 신경쓴다)과 학교참여 중 1개 문항(학부모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를 평가한다)은 2개 이상의 요인에 유사한 부하량을 보이거나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로 나타나 제외되었고, 나머지 16문항에 대해 <표1>에 나타난 것처럼 5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요인 1은 '학습관여'로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치며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등 학습을 지원하는 행동이며, 요인 2는 '학교참여'로 자녀의 학교에서 개최되는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참관, 자원봉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요인 3은 '자녀 동반 문화·여가 활동'으로 자녀와 함께 여행이나 취미활동,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요인4는 '정서적 지원'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기분을 맞추는 등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관여 행동을 포함한다. 요인 5는 '사교육 지원'으로 과외나 학원 관련 정보 수집, 공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요인 간 KMO 지수는 .821로 요인분석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요인은 총 분산의 약 63.2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간 상관관계는 .139~.307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교육적관여 요인분석 결과(N=6,049)

문항내용	요인1 학습 관여	요인2 학교 참여	요인3 자녀동반 문화/여가 활동	요인4 정서적 지원	요인5 사교육 지원
20-3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	.807	.144	.215	.116	.054
20-4 자녀에게 공부 방법을 조언한다	.769	.193	.273	.378	.276
20-2 학교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752	.252	.214	.258	.324
20-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723	.232	.268	.362	.346
25-1 학교 학부모 단체에 가입, 참여한다	.132	.774	.098	.089	.067
25-3 학교 학부모 총회에 참여한다	.173	.741	.152	.110	.183

25-2	학교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168	.731	.122	.102	.075
25-4	담임교사의 공개수업을 참관한다	.193	.678	.212	.085	.118
21-1	자녀와 함께 학교활동에 참가한다	.186	.554	.240	.110	.080
21-3	자녀와 함께 여행이나 휴가를 간다	.204	.160	.801	.153	.120
21-2	자녀와 함께 학교 밖에서 콘서트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	.209	.222	.793	.169	.202
21-4	자녀와 함께 취미나 운동을 한다	.317	.192	.776	.251	.041
20-11	자녀의 기분을 맞춘다	.259	.117	.184	.906	.223
20-10	자녀를 격려한다	.322	.154	.246	.905	.215
20-7	자녀의 공부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는다	.190	.069	.108	.265	.851
20-6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335	.211	.190	.201	.837
	설명분산	4,259	2,045	1,457	1,244	1,120
	설명분량 (%)	26,261	12,784	9,103	7,774	6,998
	누적설명비율(%)	26,261	39,405	48,508	56,282	63,280

2) 미래인재역량

미래 인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력 변수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기관리는 학생 설문지 가운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등 자기관리와 관련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동장에서 놀다 수업에 늦은 경우가 있다’의 1문항은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여 제외되었다. 공동체 의식은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의적 사고능력은 ‘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떠올린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변인들의 내용 및 평균과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3) 부모 교육적관여 영향 변인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부모 교육적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자녀,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부모 관련 변인은 학부모 설문지 응답 중, 부모의 연평균 소득, 최종학력

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최종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를 합산한 다음 평균값을 산출하여 투입했다. 월평균 소득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후, 로그변환한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모의 취업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 관련 문항들이 누락 응답률이 높아(10%~30%)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자녀변인은 학부모 설문지 중, 자녀의 성별, 형제자매 수는 남자형제와 여자형제 동거여부에 대한 응답(0=동거하지 않음, 1=동거)을 합산한 값이 0이면 동거형제가 없고 1이상이면 동거형제가 있는 것으로 환산하여 투입했다. 학업성취도는 학생설문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정답 수)를 5점 척도로 변환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균값을 투입했다. 셋째, 학교변인은 학부모 설문지에서 자녀의 학교행사나 교육활동 참여기회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수준을 변인으로 삼았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들의 내용 및 평균과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변인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

분류	변수	설명	문항	평균	신뢰도
부모 교육 관여	학습관여	자녀학습을 직접 지도하거나 간접 지원	4	표준화 점수	.764
	학교참여	자녀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지원	2	표준화 점수	.739
	자녀동반 문화/여가 활동	자녀와 함께 여행, 취미, 문화행사 관람	3	표준화 점수	.703
	정서적 지원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지 제공	5	표준화 점수	.739
	사교육지원	사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재정적 지원	2	표준화 점수	.628
미래 인재 역량	자기관리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수행, 준비물, 숙제 관리	6	3.54	.801
	공동체 의식	타인배려 및 공동체 참여 의지	6	3.88	.856
	창의적 사고력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상상력 및 융합력에 대한 효능감	5	3.65	.892
영향 변인	부모 교육수준	초=6 중=9 고=12 전문대=14 대=16 석사=18 박사=21; 부와 모의 교육연수 합산의 평균값		14.03	
	연소득	$\ln(\text{월평균} \times 12)$		8.59	
	자녀 학업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의 평균 값		척도 점수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동거형제 수	동거 형제 무=0, 동거형제 유=1			
	학교 학교참여 기회	학교행사나 교육활동(명예교사, 자원봉사자) 참여기회에 대한 만족도	1	3.49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부모의 교육적관여는 요인 분석 결과 도출된 5개 요인을 비계층적 군집화(nonhierarchical clustering)중 K-means 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간 거리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동등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요인들은 표준 Z 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변환시켜 투입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를 3개에서 5개까지 변화시키면서 군집 유형의 분류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 여부와 각 군집에 소속된 사례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Hair & Black, 2000). 둘째, 부모의 교육적관여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의 자기관리,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 자녀, 학교 관련 변인들이 부모관여 군집 유형에 소속될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23.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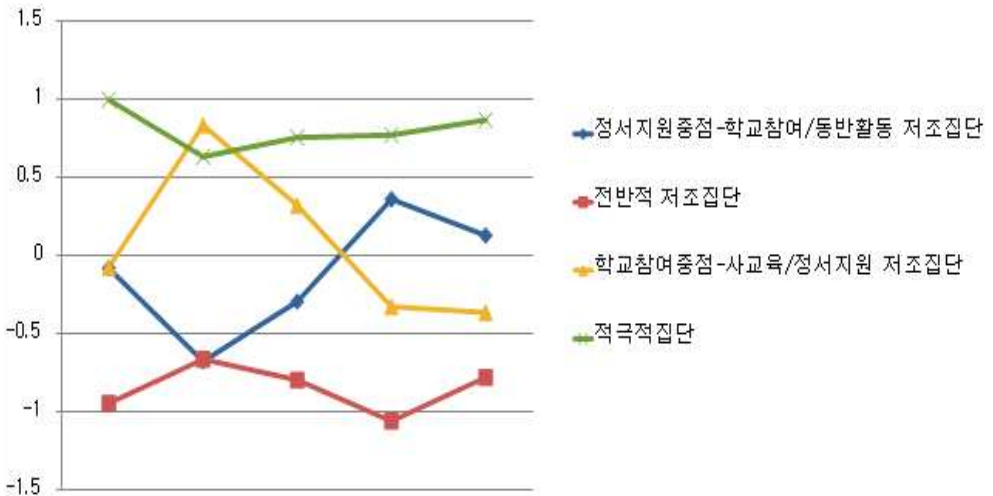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5가지 부모 교육관여 활동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수가 4개일 때,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뚜렷했고 개념적으로도 설명이 용이했다. 분류 시에는 Z 점수를 기준으로 $\pm 0.75SD$ 이상이면 매우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pm 0.25SD$ 에서 $\pm 0.75SD$ 사이는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pm 0.25SD$ 이내는 평균 수준으로 해석하였다(신이나, 손원숙, 2012). 최종 분류된 4개의 군집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정서적 지원은 높고 자녀와 문화/여가 활동은 낮으며, 학교참여는 매우 낮게 나타나 정서 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 활동 저조 집단(31.3%)으로 분류하였다. 군집 2는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5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낮은 관여 수준을 보여 '전반적 저조 집단'(20.9%)으로 구분하였다. 군집 3은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학교참여 활동에서 매우 높고 자녀와 문화/여가 활동은 높은 편이며, 정서 지원과 사교육 지원은 낮은 편이어서 '학교참여 및 동반활동 중점-사교육/ 정서 지원 저조 집단'(23.7%)으로 분류하였다. 군집 4는 전반적으로 높은 관여 수준을 보여 '적극적 집단'(24.1%)으로 분류하였다(〈표 3〉과 [그림 1] 참조). 최종 선정된 4개 군집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실시 결과, 부모 관여의 각 하위 활동 별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01$), Scaffé와 Dunnett T3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습참여에서 군집 1과 군집3이, 학교참여에서 군집 1과 군집2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군집별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001$).

〈표 3〉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분석 결과(N=5,652)

변수	군집1: 정서지원 중점- 학교참여/ 동반활동 저조 집단 (n=1767)	군집2: 전반적 저조 집단 (n=1181)	군집 3: 학교참여/동반 활동 중점- 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 (n=1340)	군집4: 적극적 집단 (n=1364)	F (사후검증)
	M	M	M	M	
학습 참여	-.081 평균	-.946 매우 낮음	-.074 평균	.996 매우 높음	1419.18*** (4)1,3)2)
학교 참여	-.677 매우 낮음	-.664 낮음	.834 매우 높음	.633 높음	1861.48*** (3)4)1,2)
자녀 동반 문화/여가	-.294 낮음	-.796 매우 낮음	.321 높음	.755 매우 높음	993.95*** (4)3)1)2)
정서 지원	.360 높음	-1.059 매우 낮음	-.327 낮음	.772 매우 높음	1504.455*** (4)1)3)2)
사교육	.128 평균	-.780 매우 낮음	-.365 낮음	.867 매우 높음	892.90*** (4)1)3)2)

*** $p < 0.001$



학습참여 학교참여 동반활동 정서지원 사교육지원
[그림 1]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별 프로파일

2.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에 따른 미래인재 역량의 차이

미래인재역량의 하위 변인인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창의적 사고력에 군집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다음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검증결과, 자기관리는 집단 간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체의식, 창의력 사고력에서는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관리에 대해서는 Tamhane의 T2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공동체의식과 창의적 사고력에서는 Scedg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관리,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력 모두에서 적극적 집단의 부모를 둔 초등학교 자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의 자녀가, 세 번째는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의 자녀가, 그리고 전반적 저조 집단의 자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4〉 군집별 미래인재 역량의 차이

변수	군집1: 정서지원 중점- 학교참여/ 동반활동 저조 집단 (n=1767)		군집2: 전반적 저조 집단 (n=1181)		군집 3: 학교참여/동반 활동 중점- 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 (n=1340)		군집4: 적극적 집단 (n=1364)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자기 관리	3.50	.67	3.34	.68	3.57	.71	3.78	.73	85.530*** (4>3>1>2)
공동체 의식	3.83	.63	3.72	.64	3.90	.63	4.07	.62	69.761*** (4>3>1>2)
창의적 사고력	3.58	.74	3.45	.76	3.71	.73	3.89	.73	84.498** (4>3>1>2)

*** $p < 0.001$, ** $p < 0.01$

3. 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우선, 부모의 관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집단과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을 비교한 결과, 부모변인 중, 교육수준과 연소득이 높을수록, 학생변인 중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정서지원 중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부모 변인 중, 교육수준과 연소득이 높을수록, 학생변인 중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교변인 중에서는 부모가 학교참여 기회에 대해 만족할수록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적극적 집단과 비교했을 시에는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 동거형제가 없는 경우, 부모가 학교참여 기회에 대해 만족할수록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표 5〉 참조).

〈표 5〉 부모교육 관여 군집에 따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참조 집단		전반적 저조집단 (군집2)								
비교 집단		정서지원중점- 학교참여/동반 활동 저조 집단(군집 1)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 집단(군집 3)			적극적집단 (군집 4)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부모	교육 수준	0.070***	0.025	1.073	0.232***	0.032	1.261	0.363***	0.031	1.437
	소득	0.623***	0.089	1.864	0.672***	0.116	1.958	1.077***	0.113	2.937
	성별 남=0	0.124	0.081	1.132	0.430***	0.107	1.538	0.412***	0.105	1.510
학생	학업 성취	0.072***	0.017	1.075	0.065***	0.023	1.068	0.116***	0.023	1.123
	동거 형제 무=0	0.232	-0.125	1.261	-0.029	0.170	0.971	0.487**	0.157	1.627
학교	학교 참여 기회	-0.039	0.049	.962	1.761***	0.058	5.817	1.566***	0.057	4.786

*** $p < 0.001$, ** $p < 0.01$, * $p < 0.05$

다음으로,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을 기준으로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 부모가 학교참여 기회에 만족할수록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적극적 집단과 비교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동거형제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부모가 학교참여 기회에 만족할수록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표 6〉 참조). 마지막으로,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 집단을 준거로 적극적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동거하는 형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부모가 학교참여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적극적 집단보다 오히려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표 6〉 참조).

〈표 6〉 부모교육 관여 군집에 따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

참조 집단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 동반활동 저조 집단 (군집 1)						학교참여/ 동반활동 중점 집단 (군집 3)			
비교 집단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 집단 (군집 3)			적극적집단 (군집 4)			적극적집단 (군집 4)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부 모	교육 수준	0.161***	0.029	1.175	0.292***	0.028	1.339	0.131***	0.023	1.140
	소득	0.049	0.105	1.050	0.455***	0.099	1.576	0.405***	0.087	1.500
	성별 남=0	0.306**	0.099	1.359	0.288	0.096	1.334	-0.018	0.082	0.982
학 생	학업 성취	-0.007	0.022	0.993	0.044*	0.022	1.045	0.051**	0.019	1.052
	동거 형제 무=0	-0.261	0.153	0.770	0.255***	0.138	1.290	0.516***	0.126	1.675
학 교	학교 참여 기회	1.799***	0.053	6.047	1.604***	0.051	4.975	-0.195***	0.035	0.823

*** $p<0.001$, ** $p<0.01$, * $p<0.05$

V. 논의 및 결론

자녀의 발달과 성취를 돕기 위한 가정-학교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기제로서 부모의 교육적관여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군집을 분류하고 군집에 따른 자녀의 미래인재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군집 분류에 있어, 부모, 자녀, 학교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행동을 학습관여, 정서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 학교참여, 사교육 지원 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군집 1은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정서적 지원이 높은 편이고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은 낮은 수준으로, 학교참여는 매우 낮게 나타나 ‘정서 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31.3%)으로 명명 하였다. 군집 2는 5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낮은 관여 수준을

보여 '전반적 저조 집단'(20.9%)으로 분류 하였다. 군집 3은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학교참여 활동에서 매우 높고 자녀를 동반한 문화/여가 활동은 높은 편이며, 정서 지원과 사교육 지원은 낮은 편이어서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23.7%)으로 명명 하였다. 군집 4는 전반적으로 높은 관여 수준을 보여 '적극적 집단'(24.1%)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에의 관여가 가정과 학교 영역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며, 학습관리, 정서적 지지, 사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 학교와의 협력 등 여러 가지 관여의 하위 유형이 부모 개인 내에 서로 다른 수준으로 공존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집단은 학교참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여행동에서 4가지 집단 중 가장 활발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참여의 경우, 군집 3: 학교참여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집단에서 적극적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적극적 집단을 제외한 비교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은 군집 3이 군집 1보다 높았고, 정서지원 및 사교육 지원에서는 군집 1이 군집 3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군집 3이 학교 현장에서 관여와 자녀를 동반하여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군집 1은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사교육지원에서는 군집 3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학교참여의 경우에는 전반적 저조 집단인 군집 2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및 여가 활동도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군집유형에 따른 미래인재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5가지 영역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의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자기관리,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관여의 빈도 뿐 아니라, 다양한 하위행동 유형이 고르게 그 수준이 높을 때, 미래 인재역량이 가장 잘 함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가지 역량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은 학교참여/동반활동이 활발하고 사교육/정서지원은 저조한 집단이었으며, 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주로 지원하고 학교참여 및 동반활동에는 소극적인 집단이었다. 자녀의 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부모의 관여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집단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심리·정서적 안녕 외에도 미래인재가 갖추어야할 역량함양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자율성을 부여하고 합리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가 독립심과 자기 통제력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최윤경, 이지연, 2011; Belsky, 1991)을 지지해준다. 또한, 문화 및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기관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신혜숙과 동료들의 연구(2017)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공동체 의식 역량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간에 친근한 대화 및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이나 (김위정, 2012; 김희태, 김정림, 2012) 부모와 함께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선미정 외, 2018; 신혜숙 외, 2016) 등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해준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아개념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공

동체 의식 증진에도 반영됨(선미정 외, 2018)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사고력의 경우에도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를 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박성익, 이규민, 2004; 조성연, 1997)을 지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가 정서 및 사교육 지원에 적극적이어도 학교참여 및 자녀와의 동반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에 비해 학교참여 및 동반활동에 활발한 집단의 자녀가 세 가지 역량 모두에서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삶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에 오고가는 대화, 모델링, 상호간의 의사결정, 인식의 공유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활 속에서의 소통과 실행 없이 단순한 정서적 격려나 물질 지원, 사교육 서비스를 통한 학습지원 만으로는 초동자녀의 미래 인재 역량을 증진시키기 어려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부모 관여 군집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여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교참여 기회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여가 적극적일 확률이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다는 기존연구(이두휴, 2008; Kohl et al., 2000)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동거하는 형제자매 수는 군집의 구분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비교집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동반활동 저조 집단을 준거로 삼았을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 학교참여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 및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학교참여 중점 집단에 속할 확률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학교참여 기회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over-Dempsey 와 Sandler(2005)의 학부모 학교참여 동기 모델과 이를 검증한 Walker 와 동료들(2010)의 후속 연구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참여/동반활동 중점-사교육 및 정서지원 저조 집단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여행동을 보였던 적극적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부모의 교육,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 이들 영향요인이 적극적 관여에 기여함을 시사했다. 다만, 부모가 학교참여 기회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집단보다 오히려 학교참여 중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로부터 참여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참여를 독려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동거하는 형제자매 수의 영향력은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반적 저조집단을 준거로 했을 때, 외동이 아니라 동거하는 형제가 있을수록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지원 중점 집단을 준거로 한 경우와 학교참여 중점 집단을 준거로 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학교참여 및 교육적 관여가 어렵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집을 학교참여 중점, 사교육/정서지원 저조 집단으로 구분한 만큼, 형제가 있으므로 해서 사교육과 정서지원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분산되거나 스케줄 상의 문제로 각 자녀의 학교참여 기회를 모두 충족할 수 없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별 변인과 관련해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여학생일 경우, 대체로 관여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남학생일수록 가정중심 관여에 더 가까운 정서지원 중점-학교참여/ 동반활동 저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학교참여가, 딸인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관여에 더 활발하다는 기존 연구(Manz et al. 2004)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학교 방문 시, 아들과 딸에 대한 관여 사유가 달라 딸에게는 지지를 위한 관여를, 아들에게는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방문이 더 많다(Muller, 1993)는 보고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남학생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참여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실제 및 추후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초등 고학년 학부모 모집단 내에 다양한 하위 관여유형이 조합된 군집이 존재함을 발견한 것은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갖춘 자원과 상황에 따라 관여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한다는 Lee 와 Bowen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특정영역의 관여 행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의 관여 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모든 하위유형에서 높은 관여 수준을 보였던 적극적 집단에서 세 가지 미래 인재역량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교육적 관여의 양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고르게 실행하는 질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미래 인재 역량에 미치는 부모의 교육적관여의 역할이 밝혀진 만큼 학교 및 교육 정책 기관 전반에서 부모의 관여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관여활동 및 학교현장에서의 참여 활동이 역량 함양에 직결되므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부모가 학교로부터 관여를 독려받고 학교활동 참여가 용이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관여의 필요성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일 등이 요구된다. 예컨대, 학교참여의 일환으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6학년 자녀를 돕기 위한 학업, 진로, 인성 계발 관련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강의 등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여

건이 어려울 경우 부모관여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관여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는 체육대회, 영화관람,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초대함으로써 관여를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적관여 하위 유형을 구성하였으므로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관여 유형을 더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과 근로시간, 부모 관여에 대한 유능감 등은 선행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누락 응답률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취업모와 전업모 간의 부모 관여 군집의 비교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향후에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여 활동을 학부모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분석했으나 같은 관여 활동이라도 관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입장에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부모가 인식한 관여와 자녀가 인식한 관여 유형 간 비교 연구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여 집단 구분 시, 자녀의 성별, 형제자매 수가 미치는 영향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발표.**
- 길혜지, 황정원(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 연구, 11**(1), 127-154.
- 김경희(1997). 한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지원 행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소영, 진미정(2015). 초중고 학교급별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변인. **가족과 문화, 27**(2), 27-60.
- 김승보(2015). 학부모의 교육참여: 현실과 과제. **학부모연구 2**(1), 1-23.
- 김양분, 임현정, 남궁지영, 박희진, 신혜숙, 김성식 외 (2013). **한국교육중단연구(KELS) 2013:조사개요보고서(기술보고 TR 2013-8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위정(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지연, 이은주(2017). 부모 양육방식 군집유형에 따른 학습습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4**(4), 153-178.
- 김희태, 김정림(201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0**(3), 71-92.
- 박상미(2018). 분제중심학습법을 적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수업이 초등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빅성익, 이규민(2004).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모형들의 고찰과 시사점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5**(4), 169-193.
- 박현정, 김전옥, 손운희(2016).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변수용, 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 배인경, 이세림(2018). 부모-자녀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2), 155-163.
- 설경옥, 정승원(2013). 초등학생의 개인 및 부모환경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41-58.
- 송운혜(2011).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

연구, 18(2), 183-202.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 관계. **열린교육연구**, 23(3), 45-64.

신혜숙, 김준엽, 민병철(2016). 자기관리와 공동체의식에 대한 학업우선교육관의 영향. **열린교육연구**, 24(3), 51-73.

신혜진(2011). 중학교 학부모 간 사회관계망이 자녀 교육관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145-169.

심대영(1996). 학부모의 학교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자녀교육지원 활동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윤성연, 정경미(201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수준과 자녀의 도덕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07-328.

이두휴(2008).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3), 135-165.

이세용(1998). 부모의 교육참여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교육**, 25(1), 114-141.

이세용, 양현정(2003).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교 및 교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3(2), 185-208.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2018).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의 개인내적, 학교생활, 지역공동체 의식의 차이-초 4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21-40.

이종각(2016). 2차 교육혁명기의 교사-학부모 관계구조 변혁의 과제. **학부모연구**, 3(2), 1-22.

이현주, 이정규, 도승이(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창의성과 논리적사고력, 자기주도성과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13(3), 225-244.

전지원, 전자배(2016).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43(2), 5-31.

전춘애(201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 정도에 관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291-317.

정제영, 정예화(2015).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73-93.

정진경(1999).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2), 19-30.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 아동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 17-32.

조주연, 강문선(2017). 자기결정성동기와 학습전략, 자기관리능력,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지**, 31(1), 105-120.

주영효, 정주영, 박균열(2016).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교사에 대한 학생 인식이 중·고등학생의

- 인지적, 정의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403-430.
- 최윤경, 이지연(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 통제에 매개효과 연구. **아동연구**, 202(2), 235-251.
- 최홍규(1999). 학부모의 교육지원행위와 아동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황여정, 장희원, 김경근(2014). 부모의 교육지원이 초등학생의 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0(1), 93-122.
- Belsky, J. (1998). Paternal influence and children's well-being: Limits of, and new directions for, understanding. In A. Booth & A. C. Crouter (Eds.), *Men in families: When do they get involved?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pp. 279-293).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pstien, J. (1987). Parent involvement: What research says to administrator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19(2), 119-136.
- Hair, J. F.,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40-763.
- Hong, S. & Ho, H.Z. (2005). Direct and indirect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ing across ethnic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32-42.
- Hoover-Dempsey, K., Bassler, O. & Brissie, J. (1992). Explorations in parent-schoo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5(5), 287-294.
- Lee, J., & Bowen, N. K. (2006). Parent involvement, cultural capital, and the achievement ga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3(2), 193-218.
- Kohl, G. O., Lengua, L. J., & McMahon, R. J. (2000).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Conceptualizing multiple dimens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family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6), 501-523.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Executive summary*.
- Manz, P. H., Fantuzzo, J. W., & Power, T. J.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mily

involvement among urba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6), 461–475.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Minke, K. M., & Anderson, K. J. (2005). Family–school collaboration and positive behavior support.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7*(3), 181–185.

Muller, C. (1993). Parent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nalysis of family resources available to the child.. In B. Schneider and J.S. Coleman (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pp.77–114). Boulder, CO: Westview Press.

Walker, J., Shenker, S., & Hoover–Dempsey, K. (2010).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Implications for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4*(1), 27–41.

* 논문접수 2019년 2월 7일 / 1차 심사 2019년 3월 8일 / 게재승인 2019년 3월 21일

* 신혜진: 연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매릴랜드 대학교에서 학교상담자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jshin@seoultech.ac.kr

Classifying Parental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Differences in Competencies and Influencing Factors*

Shin, HaeJin**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hreefold; 1) to classify parental involvement activities across home and school at the upper-elementary school level; 2) to test the group differences in core competencies, which were composed of self-management, sense of community, and creative thinking; 3)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various factors on group memberships including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child gender, the number of siblings,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s' perceptions of invitations for school involvement. Data was drawn from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13(KELS: 2013). Survey responses from a total of 6049 6th graders and their parents were analyzed.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revealed four groups of parent involvement; 1) emotional support focused and lack of school participation/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with children, 2) overall passive involvement, 3) active school participation/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with children and lack of emotional support/private education, and 4) overall active involvement. Students from the fourth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all the three competencies. The third group was ranked at the second highest followed by the first cluster. The second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s of all the competencies. All the study factors related to parent, child, and scho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differentiation between passive and active involvement groups. In particular, parents' perceptions of invitations for school involvemen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group membership to the third group.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Involvement, Competencies, Influencing Factor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